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사업 성과평가 및 제고 방안

2010. 12.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1. 연구의 요약

- 본 연구보고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APEC중소기업혁신센터사업”의 성과평가 및 제고방안에 대하여 수행한 연구를 정리한 것임.
- “APEC중소기업혁신센터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무국(secretariat)을 두고 있는 지역협의체인 「APEC중소기업혁신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임.
 - 「APEC중소기업혁신센터」는 우리가 주도하는 소수의 국제 지역협의체 중 하나로서 “APEC중소기업혁신센터사업”은 APEC 경제권 내 중소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에 대한 높은 평가와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확대 및 발전이 기대되는 잠재성 높은 사업임.
 - “APEC중소기업혁신센터사업”의 여러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역내 회원국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점이 본 사업이 지닌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음.
-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사업”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혁신세미나, 웹사이트 운영 및 정기간행물 사업, 혁신컨설팅 사업, 한·일 중소기업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한·중 e-비즈니스 협력 사업, 중소기업지원제도 전문가 파견 사업, 혁신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 7개 단위사업을 포함
-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 3개 항목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
 - (1) 2006년 이후 추진된 “APEC중소기업혁신센터사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각 사업을 평가
 - (2) 지속적인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유사 지원사업과의 차별화 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3) 「APEC중소기업혁신센터사업」 평가지표 개발

1.1.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단위사업별 성과분석 및 평가

○ 중소기업 혁신세미나 사업

- 본 혁신세미나 사업은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의 사업 중 회원 경제권間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혁신정보에 대한 공유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사업에 대한 회원 경제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 사업이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의 사업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회원 경제가 높이 평가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평가를 볼 때, 향후 본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충실한 진행 및 성과관리가 요구됨.

○ 웹사이트 운영 및 정기간행물 발간 사업

- 웹사이트 운영 및 정기간행물 발간 사업은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와 APEC 회원 경제권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의사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웹사이트 운영과 정기 간행물의 발간 사업은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혁신교육 훈련과정 운영 사업

- 중소기업 혁신교육과정 운영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된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의 중요한 사업
- 그동안 개발도상국 회원 경제를 중심으로 실시된 본 사업은 교육에 참여한 대부분 참가자로부터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또한 혁신교육의 교육콘텐츠나 교육 효과 측면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여, 교육 내용의 상당 부분이 해당 경제권 정부 정책에 반영된 사

례가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 혁신교육과정 운영사업은 APEC 회원 경제권의 니즈를 반영하여 교육콘텐츠를 보다 신중하게 개발하고 본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일 비즈니스 매칭 사업

- 한일 비즈니스매칭 상담회 사업은 해당 경제권間 정보 교류 및 사업 확대를 위해 요긴한 APEC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을 평가됨.
- 또한 매칭기업 간의 비즈니스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이므로 APEC 중소기업 혁신 센터의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도출된 문제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천에 옮기면 보다 큰 사업성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여 여타 APEC 회원 경제권을 대상으로 확대 시킨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 혁신컨설팅 사업

- 2009년과 2010년에 실시한 혁신컨설팅 사업은 수진기업(受診企業)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
- 따라서 본 사업의 효과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출된 문제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본 사업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APEC 회원 경제권 중 개발도상국의 경우, 학술적이고 추상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보다는 현장문제를 비교적 단기간에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본 혁신컨설팅 사업이 높은 사업성과를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됨.

1.2.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단위사업별 차별화 및 제도 개선 방향

-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사업 추진의 개선모델은 (1) 사업 성과분석 및 종합평가를 통한 문제점 해결, (2) APEC 경제권의 니즈 반영, (3) OECD 등 국제기구의 유사 사업과의 차별화 전략을 반영하여 구축
- 사업 성과분석 및 종합평가를 통한 문제점 해결 (5개 사업 기준)
 - APEC 혁신세미나 성공요인은 회원 경제권간의 협조와 구체적인 사업성과 달성에 있으며 그동안 혁신세미나에 참가한 회원 경제권 역시 이를 지양해 줄 것을 요구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APEC 역내 회원 경제권간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혁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웹사이트 운영과 정기간행물의 발간은 APEC 역내 경제권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웹과 간행물의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 혁신교육과정 운영사업은 역내 개도국 경제권으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세심한 운영이 필요함. 본 사업의 운영 핵심은 교육 참여 경제권의 니즈를 최대한 수용·반영하는데 사업의 성공 여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일 비즈니스매칭 상담회 사업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익한 사업으로, 다양한 매칭기업 네트워크가 제대로 정비된다면 매우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의 시사점을 기반으로 여타 회원 경제권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성공의 잠재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됨.
 - 혁신교육과정 운영사업과 더불어 혁신컨설팅 사업은 APEC 역내 회원 경제의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기여가 가능한, 현장성이 강한 실천적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임.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선한다면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의 사업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APEC 회원 경제권의 니즈 반영 (5개 사업 기준)

- 혁신세미나 사업은 회원 경제권간 협조와 구체적 성과 달성을 무엇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웹사이트 운영 및 정기간행물 발간 사업에 있어 APEC 회원 경제권은 APEC 역내 다양한 시장정보 보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혁신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에 더욱 신중한 주제 선정과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콘텐츠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한일 비즈니스 매칭 사업은 다양한 매칭기업 확보 및 풍부한 매칭기업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혁신컨설팅 사업은 컨설팅 기간 연장과 더불어 컨설팅 사후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등 국제기구의 유사 사업과의 차별화 전략 반영

-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와 유사한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하는 국제협력기구로는 한-ASEAN 센터, APEC SME Crisis Management Center (APEC CMC), OECD Working Party on SMEs and Entrepreneurship (WPSMEE) 등을 들 수 있으며 각 국제협력기구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한-ASEAN 센터는 무역, 관광, 문화 산업의 교류에 초점을 둔 포괄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 대만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APEC SME Crisis Management Center (APEC CMC)는 중소기업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위기관리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 반면, OECD Working Party on SMEs and Entrepreneurship

(WPSMEE)는 주로 중소기업 정책입안 및 연구에 목적을 두고 중소기업 발전 정책 개발에 무게를 두고 있음.

- 이에 반해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사업”은 이론 및 추상적 차원을 떠나 현장실무 접근방법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를 사업추진 개선모델에 반영하여 다른 국제협력 사업과 뚜렷한 차별화를 강조함.

◦ 사업추진 개선모델 구축의 기본원칙

- 전절(前節)과 같은 사업성과 분석결과 및 APEC 회원 경제권의 니즈의 반영 그리고 여타 국제기구의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사업"의 개선모델을 구축하도록 함.
- 이에 따라 각 단위 사업의 개선모델의 구체적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혁신세미나 사업추진 개선모델

- 혁신세미나 사업의 운영 기본 철학은 APEC 회원 경제권間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음.
- 특히 경제선진 국가와 개발도상국가 간의 신뢰성 있는 협조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본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음.
- 따라서 개도국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혁신정보를 개발하고 공유하여 개발도상국 회원 경제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웹사이트 운영 및 정기간행물 발간 사업추진 개선모델

-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정기간행물을 배포하는 본 사업의 본질은 회원 경제권간 중소기업의 혁신정보를 공유하고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있음.
- 따라서 회원 경제가 원하는 진정한 콘텐츠가 무엇인지(needs)를 정

확히 파악하는 것이 본 사업 성공의 선행 요인

- 이 같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관련 정보를 확대·발굴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와 간행물 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혁신교육과정 운영 사업추진 개선모델

- 중소기업 혁신교육과정 운영사업은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이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 회원 경제권으로부터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사업이므로 신중한 운영이 필요
- 본 사업을 운영하는 중요한 핵심요인은 교육 참여 경제권이 가장 원하는 교육콘텐츠(needs)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 따라서 교육콘텐츠 개발은 학술 차원이 아닌 철저한 현장 중심의 실무사례로 이루어져야하며 회원 경제권이 관심을 가지는 산업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일 비즈니스매칭 사업추진 개선모델

- 한일 비즈니스매칭 상담회 사업은 역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에 구체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APEC 사업으로 참여 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음.
- 현재까지 파악된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과 참여 경제권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면 기대 이상의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신중한 매칭기업의 선정, 다양한 매칭기업의 확보와 기업 정보, 그리고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본 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이라 볼 수 있음.

◦ 혁신컨설팅 사업추진 개선모델

- 중소기업 혁신컨설팅 사업은 개발도상국 경제권의 기술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으로 해당 경제권으로부터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은 컨설팅 수진기업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장실무에 적합한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데 있음
- 따라서 컨설팅 수진기업에 대한 사전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컨설팅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컨설팅을 통한 문제 해결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1.3.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단위사업별 평가지표 개발

- 새로운 전략 방향과 사업의 성과가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각 단위사업별 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됨.
- 평가 핵심개념
 - 경제선진국가 경제권과와 개발도상국가 경제권間 협조관계에 있어 양측의 상호신뢰도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 반영
 - 혁신세미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업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혁신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는지 여부의 파악이 중요
- 이와 같은 평가지표를 각 단위사업별 지표 및 종합평가지표로 구분하여 개발
- 단위사업별 평가지표
 - 단위사업별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혁신세미나사업	웹사이트운영 및 정기간행물 발간 사업	혁신교육과정 운영사업	한일비즈니스 매칭사업	혁신컨설팅 사업
(1) 회원경제의 세미나 참여 증가율	(1) 웹방문자 증가율	(1) 교육 참여 경제권 증가율	(1) 매칭기업 합리적 선정	(1) 컨설팅 수진기업 증가율
(2) SMEWG 참여 증가율	(2) 콘텐츠의 적시성	(2) 교육 콘텐츠 의 현장 실무반영	(2) 매칭기업 수 증가율	(2) 수진기업 매출 증가율
(3) 세미나 주제의 현장 실무성	(3) 콘텐츠 만족도	(3) 교재 개발 협의체 구성 여부	(3) 매칭상담 성공 증가율	(3) 수진기업 컨설팅 만족도
(4) 회원 경제권 간 협조관계	(4) 간행물 사후관리 여부	(4) 교육 콘텐츠 만족도	(4) 사후관리 여부	(4) 사후관리 여부

- 이와 같이 동일한 사업을 연도별로 계속 추진할 경우 단위사업별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단위년도별 사업 추진 성과를 비교
- 단순종합평가지표는 다음의 수식에 의함.

$$D_t = \sum_{i=1}^m p_i, \quad p_i = \sum_{j=1}^n F_j$$

D_t = t년도 단순종합평가지표 점수

P_i = i사업의 평가지표 점수

F_j = j평가지표 점수

i = i사업, $i = 1, 2, \dots, m$

j = j평가지표, $j = 1, 2, \dots, n$

- 국제정치·사회·경제 등 국제적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업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평가지표를 통하여 측정이 가능
- 가중종합평가지표는 다음의 수식에 의함.

$$WD_t = \sum_{i=1}^m W_i P_i$$

$WD_t = t$ 년도 가중종합평가지표

$W_i = i$ 사업의 가중점수

$$\text{단, } \sum_{i=1}^m W_i = m, 0 \leq W_i \leq m$$

- 단순종합평가지표는 단위년도별 단순 비교를 위한 평가지표이고, 가중종합평가지표를 통하여 사업별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한 성과의 측정이 가능

2. 결론

- “APEC중소기업혁신센터사업”은 한국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 장점을 지닌 사업으로 APEC 경제권 내 중소기업 발전에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의 향후 지속적인 확대 및 발전이 기대되는 잠재성 높은 사업
 - 이는 본 사업이 우리나라(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무국(secretariat)을 두고 우리가 주도하는 소수의 국제 지역협의체가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점에 기인함.
 - “APEC중소기업혁신센터사업”을 통하여 APEC 역내 여러 중소기업에게 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역내 회원 경제권間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2005년 대구 제12차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2006년 2월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시작한 “APEC중소기업혁신센터사업”은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성공적으로 이관되었으며, 야심찬 신규 사업(예: 중소기업지원제도 전문가 파견 사업 등)으로 확대되

고 있음.

- 중소기업 혁신세미나, 웹사이트 운영 및 정기간행물 사업, 혁신컨설팅 사업, 한·일 중소기업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한·중 e-비즈니스 협력 사업, 중소기업지원제도 전문가 파견 사업, 혁신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 7개 주요 단위 사업이 “APEC중소기업혁신센터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 이중 중소기업 혁신세미나, 혁신컨설팅 사업, 한·일 중소기업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혁신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은 APEC 회원 경제권으로부터 APEC 역내 중소기업 발전의 지식 공유라는,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의 설립 목적에 크게 부합하는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역내 회원 경제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임.
- OECD 등 국제기구가 개도국을 대상으로 “APEC중소기업혁신센터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APEC중소기업혁신센터」는 추진사업의 전략적 방향 및 차별성 제고 방안을 “중소기업 혁신 실무 역량 강화”에서 찾아야 함.
 - 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조직 역량 및 APEC회원 경제권의 니즈와 부합
 - 이를 위하여 각 단위 사업의 콘텐츠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콘텐츠의 개발 및 조정에는 반드시 APEC 회원 경제권의 니즈를 수용·반영하는 것이 각 단위사업의 성공 요소이며 “APEC중소기업혁신센터사업”의 성공적인 확대·발전의 핵심 요인으로 판단됨.

3. 정책제언

- “APEC중소기업혁신센터사업”은 한국의 국격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이의 성공적 지속을 보장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함.

- “APEC중소기업혁신센터사업”의 차별화 전략을 “중소기업 혁신 실무 역량 강화”에 둘 것을 권고함.
- 이와 같은 전략적 방향을 기반으로 향후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사업” 중 여타 국제기구의 사업과 차별성이 크게 부각되는 소수의 사업을 대표사업(signature products)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APEC 역내 회원 경제권으로부터 호응도가 높으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 혁신세미나 및 혁신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이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사업”의 대표사업(flagship programmes)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한 중소기업 개발 지식 및 경험을 APEC 역내 개도국 경제권과 공유하는 등 높은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이를 위하여 각 단위사업의 강화·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투입 등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발전 방안은 APEC 역내 경제권의 호응도가 높은 단위사업의 콘텐츠 조정 및 개발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 혁신컨설팅 사업, 한·일 중소기업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등 APEC 역내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할 것을 제안함.
- “웹사이트 운영 및 정기간행물 사업”은 APEC 역내 회원 경제권과의 소통을 통하여 회원 경제권간의 협력을 조성하는 사업이란 중요성이 있으므로 타 단위사업에 비하여 부진한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할 것을 권고함.
 - 이를 위하여 “웹사이트 운영 및 정기간행물 사업”을 담당할 전담 인력의 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